

복지인프라구축 지역민 '관심집중'

부산 옹호복지관, 지역 기업·관공서 등과 자매결연

부산 옹호복지관(관장 혜총)이 지역의 기업, 관공서, 병의원, 봉사단체, 지역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민들이 지역복지에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시민여객, 동명대학, 해군 3함대 의무대, 부산시립 중앙도서관, 신세계이마트 문현점, 김인영 내

과, 후원금 책정에 이어 회사 차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빠르면 4월 중 창단될 옹호복지관 옹호햇빛극단도 지역 주민이 이웃들의 복지를 직접 챙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복지관에서 공연을 펼치면서 인연된 지역 연극단체인 남구연극회의 박동민 회장이 옹호햇빛극단의 창단을



옹호복지관은 3월 17일 김인영 내과와 자매결연 협약을 가진데 이어 연내 100건의 협약 체결을 목표로 참여단체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이, 청소년들로 구성된 극단을 통한 교육 연극이나 음악, 미술 등의 전문가들과의 협약으로 보다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도 구상 중이다.

이 밖에도 옹호복지관은 사육 이전으로 중단됐던 동국제강의 후원과 봉사도 협약체결로 되살아나 옹호중 적십자봉사, 적십자불교봉사회 등과도 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옹호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웃들의 복지를 챙기고 다양한 사업의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내에

'인연의 고리 100건 만들기'를 목표로 협약체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4월 중 복지관 한쪽 벽면에 '사랑 나눔 명의 전달'을 마련하고 봉사나 후원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등재할 계획이다.

이춘성 부관장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힘이 돼 주면 지역 복지에서 못할 일은 없다"며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지역 복지 현장에 신바람 나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051)628-6737

글·사진=천미희 기자

소림사 참회산림대법회

부산 소림사(주지 혜진)는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 28회 소림사 참회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참회 산림 대법회 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에는 자비도량참법기도가 봉행되며 24일부터 매일 해인 스님, 무심 스님, 통광 스님, 종범 스님, 묘허 스님, 설우 스님 등의 법문이 이어진다. 참회 산림법회 회향 후 3월 31일에는 방생기도 법회를 봉행한다.

소림사 참회산림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엄법사이고 소림사 회주 정일 스님의 은사신인 금광 스님이 48년 전 화엄산림, 법파산림과 함께 봉행해왔던 법회로 산림법회가 흔치 않았던 당시, 하루 1천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법회였다. (051) 468-4497 천미희 기자

우곡선원 청소년 참선 교실

(사)우곡선원(http://www.wookok.org)은 2005학년도 시행되는 월 한차례 토요일입원 제도를 맞아 청소년들의 심성개발을 위한 참선(명상) 교실을 연다.

3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해운대 오션타워 1930호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참선 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4차례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참선 교실은 몸과 마음 가꾸기, 주의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있다.

명상, 선기공, 호흡법, 3분 명상, 마음 열기, 토론 등의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좌선의 자세와 방법, 반가부좌 좌선 체험 등의 프로그램 후에는 학생들이 느낀 점 발표하게 함으로써 참선을 통한 마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동백섬과 해운대 바닷가에서 진행되는 '자연 속 명상'은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1)740-6288 천미희 기자

대구·경북 108 여성불자회 창립

대구·경북지역의 여성 불교지도자들이 3월 8일 대구·경북 108여성불자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08여성불자회는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열린 창립법회에서 불교예술가 박소현 씨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집행부를 구성했다. 108여성불자회에는 구후선(대구 대상사, 권운자(대구 부도암), 김승규(포항 황해사, 박태연(대구 부도암), 장성숙, 이재남, 김선희, 정봉남(직지불교대학), 진선화(대구 정법사), 김미연(보덕사), 조경숙(감음사, 김순옥(포항 육원사), 김경자(보문사), 이분선(보광사), 심순옥(황룡사), 정정희(한마음선원 포항지원), 김육만(영남불교대학) 씨 등이 참여했다.

108여성불자회는 앞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자원봉사 및 후원, 여성불교회관 건립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편협성 버리고 불국토 건설에 힘쓸 터"

박소현 초대회장



박소현 초대회장

"갈등과 반목은 화합으로 승화시키고, 이타의 보살행위를 실천하며, 무사와 차별은 자비로써 치유하는 108여성불자회가 되겠습니다."

3월 8일 출범한 대구 경북 108여성불자회 박소현 회장(사진)은 "개인의 인연 따라 스님과 종단을 구분하는 편협성을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인간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역 여성 불자 108명이 뜻을 모았다"고 창립취지를 설명했다.

"여성불교회관 건립 방송 모니터 활동 등 계획"

방송 모니터 활동 등 계획

"종단과 사찰 구분 없이 모든 여성 불자들이 함께 모여 불교발전을 논의하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박 회장은 여성 불교회관 건립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또 다양한 계층의 여성 불자가 모인 만큼 방송모니터를 통한 불교지킴이 활동과 노인의 전화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에서 소현화실을 운영하고 불교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 회장은 "지금까지는 불씨에 불과하지만 안동 영주 구미 등 제2, 제3의 108여성불자회를 조직해 언젠가는 온 산하대지를 대우고 불국토를 이룰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053)625-0108 배지선 기자

'옹호햇빛극단' 창단, 주민에 문화 서비스

'인연의 고리 100건 만들기'로 협약업체 발굴

과 등 10여 단체가 옹호복지관의 결연단체가 됐다. 이들 단체 중에는 1999년부터 후원, 자원봉사 등으로 참여해온 단체도 있지만 자매결연을 통해 한층 더 넓고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한 단체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마트 문현점의 경우, 협약 체결 전에는 직원들끼리의 봉사활동에 그쳤으나 체결 후 봉사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이 높아지면서 봉사참여 인원

적극 돕고 있다.

옹호햇빛극단은 빠르면 5월 열리는 복지관 주최 옹호장승축제에서 첫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연극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옹호햇빛극단은 매년 정기공연 2회, 방문공연 2회를 목표로 노인정, 아파트 단지, 학교, 노인대학 등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특히 향후 어린

"경험·연륜 맘껏 발휘하세요"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대구·경주 시니어클럽



부안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혜총)는 3월 17일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단 '양정그린(GREEN) 사업단' 발대식을 가졌다.

혜총 스님은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배우고 사회로 환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866-0454 한편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산하 기관인 대구남구시니어클럽(남구 노인인력지원기관)도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덕노인복지회관과 함께 남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2005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사업 설명, 사업 참여자 선서, 사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

거리환경지킴이 등에 배치

를 비롯 다도, 동화 구연, 레크레이션, 종이접기 등의 자격 보유자들이 활동하는 강사단, 재가독거노인 도우미, 재생비누 만들기 사업단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행복한 나눔 가게는 "겨울의류, 가전제품, 가방 등 겨울 중고품을 500원에서 3,000원의 저렴한 가격대로 만날 수 있

는 절호의 찬스"라며 많은 애용을 부탁했다. (053)474-1144 또한 경주시니어클럽 어르신사업단도 18일 발대식을 갖고 경주지역 4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문화유산해설사, 숲생태해설가, 건달바중 불패, 문화유적보존 사업단, 찰보리빵사업단, 차문화 예절반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천미희·배지선 기자

를 비롯 다도, 동화 구연, 레크레이션, 종이접기 등의 자격 보유자들이 활동하는 강사단, 재가독거노인 도우미, 재생비누 만들기 사업단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혜총 스님은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배우고 사회로 환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866-0454 한편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산하 기관인 대구남구시니어클럽(남구 노인인력지원기관)도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덕노인복지회관과 함께 남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2005년도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사업 설명, 사업 참여자 선서, 사

레발표, 지성희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의 '고령화사회의 노인의 역할'에 대한 초청강연으로 이어졌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어르신은 모두 300여명.

대구 남구시니어클럽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문을 연 재활용전문매장인 '행복한 나눔가게'가 3월 한 달간 계절물품 바자회를 개최한다.

행복한 나눔 가게는 "겨울의류, 가전제품, 가방 등 겨울 중고품을 500원에서 3,000원의 저렴한 가격대로 만날 수 있

는 절호의 찬스"라며 많은 애용을 부탁했다. (053)474-1144 또한 경주시니어클럽 어르신사업단도 18일 발대식을 갖고 경주지역 4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문화유산해설사, 숲생태해설가, 건달바중 불패, 문화유적보존 사업단, 찰보리빵사업단, 차문화 예절반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천미희·배지선 기자

는 절호의 찬스"라며 많은 애용을 부탁했다. (053)474-1144 또한 경주시니어클럽 어르신사업단도 18일 발대식을 갖고 경주지역 4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문화유산해설사, 숲생태해설가, 건달바중 불패, 문화유적보존 사업단, 찰보리빵사업단, 차문화 예절반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천미희·배지선 기자

는 절호의 찬스"라며 많은 애용을 부탁했다. (053)474-1144 또한 경주시니어클럽 어르신사업단도 18일 발대식을 갖고 경주지역 4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문화유산해설사, 숲생태해설가, 건달바중 불패, 문화유적보존 사업단, 찰보리빵사업단, 차문화 예절반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천미희·배지선 기자

는 절호의 찬스"라며 많은 애용을 부탁했다. (053)474-1144 또한 경주시니어클럽 어르신사업단도 18일 발대식을 갖고 경주지역 43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문화유산해설사, 숲생태해설가, 건달바중 불패, 문화유적보존 사업단, 찰보리빵사업단, 차문화 예절반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이어갈 것이다. 천미희·배지선 기자

포항 불교·천주교 화합 결의

지도자 모임 구성 정기적 사절단 교류 약속

시장의 종교 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포항지역 불교계와 천주교계 지도자들의 화합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지역사회의 혼란을 더해주고 있다.

포항 사암연합회장 난승 스님과 죽림사주지 종문 스님, 천태종 황해사주지 용암 스님 등 지역을 대표하는 5명의 스님은 3월 11일 대구 대교구 4대교구 조정형 주

교대리신부, 이경기 사목담당신부 등 5명의 신부들을 만나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때 축하사절단의 정기적인 교류를 약속하는 등 종교간 화합을 다졌다(사진).

또, 양 종교계 지도자들은 이 자리를 가칭 종교 화합을 위한 수행자들의 모임으로 규정하고 향후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두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불교와 천주교 두 종교간의 이 같은 계획은 신인 포항 사암연합회장 난승 스님이 최근 취임하면서부터 종교간 화합 차원에서 적극 논의 돼 왔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 동림 동문회 제 6,7대 회장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일시: 불기 2549년 (2005년) 3월 29일 화요일 오후 5시
 ◆장소: 동국대 옆 엠버스터 호텔 (19층 오키드룸)
 ◆안내: 02)2270-3171

연락처: 제 7대회장 선덕 혜자스님
 수석부회장: 진 우 스님, 법 운 스님
 사무총장: 덕 오 스님
 기획실장: 선 타 스님
 총무부장: 법 만 스님
 재무부장: 현 중 스님

전화: 02)936-1700, 011-412-443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 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불행 제 7대 회장이·취임법회 초대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물씬한 봄내음이 피어오르는 이 때에 제방의 대덕 큰스님과 제불자님의 법체 청안하시길 삼보전에 기원드립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 삼보를 수호하고, 전법 포교 실천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저희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제 7대 심원식 회장을 선출하여 이·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두루 동참하여 주시어 본 법연을 빛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이임회장 이의운 · 신임회장 심원식 · 봉행위원장 박지일 합장

◆일시: 불기 2549(2005)년 3월 30일(수요일) 오후 6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
 ◆안내: (02)3446-1990, 3437-7300, 720-1836

주최: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주관: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한국불교법사대학)
 후원: CBC 108.TV